

이종욱 관세청장 "부당 환차익 노린 불법 외환거래 기획수사"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강도 높게 경고
"부당 환차익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 기획수사 나설 것"

최상현 기자

2026-07-07 15:13:28



이종욱 관세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뉴스1

이종욱 관세청장이 환율 상승을 기대해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획수사'를 예고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며 목적 외의 투자를 감행하는 등 부당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수사로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면 외화(달러)를 국내 통화(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긴 상황에서도, 최근 환율은 153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수출대금 환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적지근한 반응에 '기획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